

신안해저발굴유물중 중요유물에 대하여 (新安海底發掘遺物中 重要遺物에 對하여)

李 浩 官

〈藝能民俗研究室長〉

1. 서 언(序言)

1976년도(年度)에 第1次와 第2次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실시하여 1983年 11月 25日 현재 까지 해군(海軍)의 第 5150부대(部隊)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9次的 발굴을 실시하여 거의 종료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1976년도의 10월과 12월의 1차, 2차를 제외하고는 1977년도부터 1981년도까지는 매년 5월부터 8월말까지 대략 연(年) 1회로 2개월 내지 3개월간의 발굴작업을 해상에서 실시하였으나 1982년도 8次 발굴조사부터는 5월에 시작하여 9월말까지 발굴조사기간을 장기간으로 조정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1983년은 5월말경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의 장기간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卽) 금년도(今年度)의 발굴작업은 5월 29일 시작하여 11월 25일 경까지 5개월 27일간의 장기간 발굴작업으로 전년도(前年度)와 동일하게 침몰선(沈沒船)의 선체(船體)를 완전(完全) 해체인양(解體引揚)하는 작업(作業)과 동시 선체내외(船體內外)에 잔존(殘存)하고 있거나 산재(散在)되어 있는 도자기류(陶磁器類)를 비롯한 금속기류(金屬器類)와 동전(銅錢) 그리고 자단목(紫檀木)과 기타 부수되는 여러가지 유물(遺物)과 구조물(構造物) 등(等)을 인양함과 동시 침몰선(沈沒船)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용골(龍骨)을 비롯한 선체편(船體片)을 완전히 해체인양(解體引揚)하여 발굴작업(發掘作業)을 끝마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특(特)히 발굴작업(發掘作業)은 유물을 인양한 후 뿔은 Air Lift로 제거하고 1982년도에 실시한 선체의 선미부분(船尾部分)인 1, 2, 3, 4 격벽 구간에 이어서 나머지 5, 6 격벽 구간부터 차례로 선수(船首)쪽으로 전진(前進) 진행(進行)하면서 우현(右舷)과 좌현(左舷)의 선체편(船體片)을 해체(解體)인양 함과 아울러 선체내(船體內)의 잔여유물(殘餘遺物)을 인양(引揚)정리하면서 침몰선(沈沒船)의 핵심이 되고 현재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용골(龍骨)의 접속(接續) 또는 접합(接合)되는 부분(部分)을 확인하여 당시(當時)의 중국선박(中國船舶)의 조선방법(造船方法)을 규명(規明)하는데도 큰 목적(目的)을 두게 되었다.

당시의 중국(中國)의 조선방법(造船方法)에는 용골접합부분(龍骨接合部分)에는 일반 건축(建築)에서 보이고 있고 또 행하고 있는 상량식(上梁式)때와 같은 유물이 용골내에 장치되어 있다는 증거와 풍습에 따라 이 부분에 주목하여 이를 확인하는데도 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주목적으로 실시한 발굴작업에 인양정리 수습된 유물과 선체편을 대별하여 82년도 83년도의 것을 개관하여 보면

① 1982년도 5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굴조사 인양분은

청자류(靑磁類) 983점

백자류(白磁類) 328점

흑유류(黑釉類) 41점

잡유류(雜釉類) 220점

백탁류(白濁類) 6점

금속류(金屬類) 109점

석재류(石材類) 9점

기타(其他) 45점에 총 1,741점의 유물이고 동전(銅錢)이 18톤, 자단목(紫檀木)

이 452본(本)에 선체편(船體片)이 176편이나 된다. 특히 용골(龍骨)은 선미(船尾)부분의 것이 수습 인양되었으며

② 1983년 5월 29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발굴조사 인양된 유물과 선체편등을 살펴보면 전년도(前年度)와 동일하게 많은 유물이 인양 정리되었다.

청자류(靑磁類) 424점

백자류(白磁類) 149점

흑유류(黑釉類) 26점

잡유류(雜釉類) 261점

백탁류(白濁類) 3점

금속류(金屬類) 55점

석재류(石材類) 2점

기타(其他) 25점 총계 945점이며 동전(銅錢)은 6톤이며 자단목(紫檀木)이

334본, 선체편(船體片)이 236편으로서 이 중에는 선체(船體)의 중간부분(中間部分) 부터 선수부분(船首部分)까지의 용골(龍骨)이 포함되어 있다.

1976년도(年度)부터 1983年 11月 25日까지 발굴인양(發掘引揚)되어 조사(調查)정리된 전체(全體) 유물을(별표참조) 대략 살펴보면

청자류(靑磁類) 10,063점

백자류(白磁類) 4,962점

흑유류(黑釉類) 397점

잡유류(雜釉類) 2,050점

백탁류(白濁類) 183점

금속류(金屬類) 668점

석재류(石材類) 33점

기타(其他) 536점으로 총합계 18,892점이며 동전(銅錢)은 전체 28톤이고 자단

목(紫檀木)은 1,012본에 선체편(船體片)이 총(總) 438편(片)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인양정리 되었고 이들 유물중 중요한 것은 이미 한일고대문화전(韓日古代文化展)에 신안(新安)유물로서 상당량이 해외(海外)전시되기로 하였으며 또한 특이하고 중요한 것들을 1982년도와 1983년도에 인양정리된 유물중 몇몇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중요유물(重要遺物)

1982년도 발굴인양 정리된 유물 1741점과 1983년도에 발굴인양 정리된 유물 945점중에서 중요한 몇점을 소개하면

① 1982년도 발굴인양정리 유물중 특이한것

○ 청자양각목단문화형대반(靑磁陽刻牧丹文花形大盤)

실측치(實測值): 높이 6.5cm
구경(口徑) 33.5cm
저경(底徑) 16.8cm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짙은 청자유약(靑磁釉藥)이 대반전체(大盤全體)에 덮여 있으며 대반내(大盤內)의 밑바닥에는 우아한 모란문을 도두라지게 장식하고 있으며 내기벽(內器壁)에도 주름무늬가 중첩되게 느껴지듯 아름답게 새겨 있다. 또한 구연부(口緣部)는 외반(外反)되게 하고 구연(口緣)의 주변(周邊)을 화엽(花葉)과 같이 11엽(葉)으로 장식하여 화판(花瓣)의 넓은 전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대반(大盤) 외기벽(外器壁)도 내벽(內壁)과 동일하게 주름무늬로 장식하였으며 기대(器臺)는 그릇 전체에 안정감을 주듯 낮게 처리한 대반(大盤)이다.

○ 청자철반문마상배(靑磁鐵斑文馬上杯)

실측치(實測值): 높이 9.2cm
구경(口徑) 9.5cm
대저경(臺底徑) 3.8cm

높은 기대(器臺)를 갖춘 마상배(馬上杯)로서 유약(釉藥)은 전통적인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청자유약(靑磁釉藥)이 시유(施釉)되어 있으며 배(杯)의 구연(口緣)은 약간 외반(外反)된듯한 형태이고 기면(器面)의 내외면(內外面)과 기대(器臺)에는 철채(鐵彩)로 변진 반점이 자연(自然)스럽게 여러곳에 그려져 있다. 기대(器臺)의 중상단부(中上段部)에는 세선(細線)의 이조음각선대(二條陰刻線帶)를 돌리고 있어 더욱 장식성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 원대자기(元代磁器)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 주는 청자철반문(靑磁鐵斑文) 마상배(馬上杯)로서 그렇게 흔히 찾아 볼수 없는 유품중(遺品中) 하나이다.

○ 청자방형향로(靑磁方形香爐)

실측치(實測值): 높이 10.7cm
구경(口徑) 7.6×6.2cm

방형(方形)의 향로(香爐)로 받침은 4개의 수각(獸脚)으로 향로몸체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구연(口緣)은 약간 외반(外反)되어 있으며 사면(四面)의 구연중(口緣中) 좌우변(左右邊)의 각면(各面)에는 S자형(字形)의 손잡이를 부착시켰다. 그리고 향로 몸체 우각부(隅角部)에는 고동기(古銅器)에서 보이는것과 같이 4단의 단층받침을 각출(刻出)하여 장식하였고 또한 향로 구연부 외부(外部)에도 일정간격으로 구획(區劃)을 설정하고 그 내면(內面)에 당초문(唐草文)과 유사한 초화문(草花文)을 양각으로 조식(彫飾)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향로의 청자유약(靑磁釉藥)은 그렇게 맑은 것은 아니나 역시 용천요계(龍泉窯系) 청자유약(靑磁釉藥)으로 시유(施釉)되어 있다.

○ 청자양각유명표형주자(靑磁陽刻有銘瓢形注子)(圖 1)

실측도(實測圖): 높이 13.2cm
구경(口徑) 2.1cm

저경(底徑) 5.1cm

표형주자(瓢形注子)로서 상단(上段)의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문(如意頭文)을 양각(陽刻)으로 조출(彫出)하고 있고 그 밑으로 구획(區劃)을 설정하여 각 구획내에는 양각(陽刻)의 명문(銘文)을 각출(刻出)하였는바 그 내용(內容)은 「청산인간방편제일(靑山人間方便第一)」이라는 8자(字)의 글씨이며 또 그 밑으로 구획을 설정하여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단(下段)의 동체(胴體)에도 상단(上段)과 유사(類似)하게 구획을 설정하고 각 구획내(內)에는 추상적인 인간의 율동(律動)형태를 양각(陽刻)의 선조(線條)로 나타내어 장식하였으며 저부(底部)가까이와 하단부(下段部)는 초화문(草花文)을 역시 양각선조(陽刻線條)로 장식하였다. 손잡이는 S자형(字形)의 굴곡진 형태를 상단부터 하단부(下段部)의 동체에 연하여 붙어 있고 주구(注口)는 길게 뻗어있어 전형적인 표형주자(瓢形注子)의 형태를 갖고 있다. 전체적인 유약은 어두운 색깔로 띄고 있다. 용천요계의 청자유약으로 시유색(施釉色)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

○청자화훼소형주자(靑磁花卉小形注子)

작은 주자(注子)로 현재 주자(注子) 개(蓋)는 유실(流失)된 채이고 몸체에는 상하(上下)로 구분하여 상부(上部)에는 목단당초문(牡丹唐草文)을 양각선조(陽刻線條)로 조출(彫出)하고 하부(下部)로 당초문(唐草文)으로 장식한 아담하고 작은 주자(注子)이며 청자유약도 아름다운 유약이다.

○청자목단문마상배(靑磁牡丹文馬上杯)

실측치(實測值): 높이 19.1cm
구경(口徑) 12.8cm

높은 기대(器臺)를 갖춘 마상배(馬上杯)로 구연(口緣)은 살짝 외반(外反)되어 있으며 기내면(機內面)에는 6개(個)의 구획(區劃)을 음각(陰刻)으로 설정하고 각 구간에다 음각(陰刻)의 초화문(草花文)을 장식성 있게 조식(彫飾)하였다. 내면저부(內面底部) 중앙(中央)에는 음각(陰刻)의 목단문(牡丹文)을 화려하게 조식(彫飾)하여 기면(器面)을 아름답게 하였으며 전체(全體)에 시유(施釉)된 청자유약(靑磁釉藥)은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짙은 녹색청자유약(綠色靑磁釉藥)으로 덮여 있다.

○청자초화문완(靑磁草花文碗)

실측치(實測值): 높이 5.2cm
구경(口徑) 12.8cm
저경(底徑) 3cm

적은 기대(器臺)위에 광구형(廣口形)의 완(碗)으로서 기외(器外)에는 소문(素文)으로 처리하였으나 내면(內面)은 일조(一條)의 양각(陽刻) 뇌문대(雷文帶)로 돌리고 그 밑으로 목단문(牡丹文)과 유사(類似)한 화초문(花草紋)을 만개(滿開)한 듯 가득히 양각(陽刻)으로 조식(彫飾)하여 화려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완(碗) 전체(全體)에 시유(施釉)된 청자유약(靑磁釉藥)은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청자유약(靑磁釉藥)으로 짙은 녹색계(綠色系)를 띄고 있는 안정(安定)된 완(碗)이다.

○청자조형소주자(靑磁爪形小注子)

실측치(實測值): 높이 6.5cm
저경(底徑) 5.6cm

조형(爪形)의 소주자(小注子)로 현재 뚜껑은 유실(流失)된 채이다. 작은 손잡이와 작은 주구(注口)로 갖추고 있으며 주자전면(注子全面)에는 짙은 청자유(靑磁釉)가 덮여 있어 양징스

러운 멋을 더하고 있는 용천요계의 소형주자(小形注子)이다.

○청자수반(靑磁水盤)

실측치(實測值): 높이 4.7cm
구경(口徑) 16.1cm

청자유(靑磁釉)가 수반(水盤)의 내외면(內外面)을 질게 덮여있는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수반(水盤)으로 구연(口緣)은 내반(內反)되어 있으며 구연(口緣)바깥 주연(周緣)에는 9개(個)의 작은 돌기(突起)를 등(等)간격으로 배치하고 있고 수반(水盤)의 동체부(胴體部)에는 1조(條)의 굵은 음각선대(陰刻線帶)를 돌리고 있어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부(底部)에는 3개(個)의 수각(獸脚)을 도식화(圖式化)된 양식으로 부착(附着)되어 안정감(安定感)을 주고 있다. 특히 각 수각(獸脚)사이에도 구연부외주(口緣部外周)에 장식한 것과 같은 돌기(突起)를 각각(各各) 3개식(個式) 외주(外周)의 돌기(突起)와 엇갈리게 배치하여 동체외면(胴體外面)의 공간을 조화있게 장식한 청자수반(靑磁水盤)이다.

○청자화분(靑磁花盆)

실측치(實測值): 높이 7.8cm
구경(口徑) 13.5cm
저경(底徑) 4.6cm

구연(口緣)이 나팔형으로 몹시 외반(外反)되어 있고 이 구연(口緣)의 주연(周緣)에 파상형(波狀形)의 주름무늬를 돌려 화려함을 더하게 하였고 동체하부(胴體下部)의 기대(器臺)가 가까이 이르러는 1조(條)의 돌기(突起)된 선대(線帶)로 돌리고 있다. 화분(花盆)의 내면(內面) 중앙(中央)과 기대(器臺)와는 관통(管筒)된 원공(圓孔)을 설치하여 본래의 화분양식(花盆樣式)을 따르고 있으며 전체(全體)에 시유(施釉)한 청자유색(靑磁釉色)은 발색(發色)이 짙은 녹색(綠色)의 청자유약(靑磁釉藥)으로 역시 용천요계(龍泉窯系) 청자유색(靑磁釉色)을 갖추고 있는 원대화분(元代花盆)이다.

○청자도사형연적(靑磁道士形硯滴)(圖 2)

실측치(實測值): 높이 7.3cm

짙은 녹색(綠色)에 가까운 청자유약(靑磁釉藥)으로 시유(施釉)된 도사연적(道士硯滴)으로 그 형상은 결가(結跏)한 좌상(座像)에 도포를 어깨에서부터 걸치고 있고 머리에는 높은 두건(頭巾)을 쓰고 양안(兩眼)은 치켜뜨고 있다. 우수(右手)에는 수병(水瓶)을 들고 있고 좌수(左手)는 무릎위에 얹고 있으며 배는 볼록하게 나와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수적(水滴)의 주구(注口)는 한쪽 옆으로 일반 주자(注子)의 주구(注口)와 같이 처리하여 언뜻 보기에는 연통(煙筒)과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청자(靑磁)의 발색(發色)은 용천청자계(龍泉靑磁系)로 밝기보다는 약간 어두운면의 청자유약(靑磁釉藥)으로 되어 있다.

○청자도사형연적(靑磁道士形硯滴)

실측치(實測值): 높이 7cm

역시 짙은 녹색(綠色)이 나는 청자유약(靑磁釉藥)으로 덮여 있는 연적(硯滴)으로 도사(道士)의 형상(形像)은 머리에 두개의 상투를 구비하고 긴수염을 턱에 갖추고 있으며 통견(通肩)의 도포에 우수(右手)에는 격자형(格子形) 문양으로 된 부채 1개를 들고 있고 좌수(左手)는 도포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고 왼쪽 무릎을 약간 들어올린 듯한 상태이다. 연적의 주구(注口) 역시 연통(煙筒)과 같은 형태로 오른쪽 팔 뒷편으로 직립(直立)하여 세운듯하게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유약의 처리는 용천청자계(龍泉靑磁系)의 유약(釉藥)을 따르고 있다.

○청백자도형배(靑白瓷桃形杯)(圖 3)

실측치(實測值): 높이 2.3cm
 구경(口徑) 6.7cm
 저경(底徑) 2.7cm

복숭아를 반쪽 자른 형태(形態)의 도형배(桃形杯)로서 손잡이는 복숭아 꼭지와 줄기를 곡선(曲線)으로 굽히고 손잡이 부분에는 도엽(桃葉) 2엽(葉)을 상대(相對)하게 줄기에 붙여 배(杯)의 구연(口緣)에 배치한 정교한 수법의 도형배(桃形杯)로서 유약(釉藥)은 청백색(靑白色)의 투명한 유색(釉色)으로 시유(施釉)하였으며 배(杯)의 밑바닥은 굽이 약간 있고 굽 주위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 특히 도배(桃杯)의 몸체에는 외부(外部)에 3가닥의 굴곡부를 나타내 더욱 사실감은 주게하고 있고 옥(玉)같이 아름다운 청백자(靑白磁) 유색(釉色)은 보기도 물게 우수한 작품이다.

○백자양각화문완(白磁陽刻花文碗)(圖 4)

실측치(實測值): 높이 6.6cm
 구경(口徑) 17.8cm
 저경(底徑) 5.6cm

낮은 굽에 기벽(器壁)이 대단히 얇게 처리한 완(碗)으로 기체내부(器體內部)는 1조(條)의 양각선대(陽刻線帶)로 6등분(等分)한 구획(區劃)을 설정하고 각 구획내(區劃內)에는 서로 다른, 국화(菊花), 목단(牡丹), 연화(蓮花) 불로초(不老草) 등(等)의 화문(花文)을 만개(滿開)한 채로 양각(陽刻) 조출(彫出)시키고 있으며 기내(器內) 저면(底面) 중앙(中央)에도 연화문(蓮花紋)이 화려하게 양각(陽刻)되어 있다. 반면에 완(碗)의 외벽(外壁)은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는 평면(平面)의 소문(素文)으로 처리한 것이 몹시 단조롭고 우아하게 보인다.

특히 구연부(口緣部)는 소성(燒成)당시 부터 복소(覆燒)로 한 관계로 유약(釉藥)이 시유(施釉)되어 있지 않아 은(銀)으로된 구대(口帶)를 입힌듯 하다.

○청백자화형접시(靑白磁花形접시)

실측치(實測值): 높이 1.1cm
 구경(口徑) 14.6cm

다섯의 꽃잎을 만개(滿開)한듯 펼쳐 꽃 모양으로된 청백자(靑白磁)접시로 유약(釉藥)은 청백자유색(靑白磁釉色)을 띠고 있으며 접시 바닥은 굽이 없이 평평하게 처리하고 유약(釉藥)을 시유(施釉)치 않았으며 접시 내면(內面)과 외면(外面)에만 시유(施釉)하였고 기벽자체(器壁自體)는 몹시 얇게 소성(燒成)한 것이 특징적(特徵的)이다.

○청백자쌍엽문접시(靑白磁雙葉文접시)

실측치(實測值): 높이 1.1cm
 구경 16.1cm

형태는 타원형(橢圓形)으로 된 접시로 구연(口緣)은 외반(外反)되어 넓은 전을 돌린듯하게 되어 있다. 접시의 기면내(器面內)에는 수엽(樹葉) 2엽(葉)을 양각(陽刻)으로 하여 대칭적(對稱的)으로 배치조식(配置彫飾)하였으며 접시 바닥은 평평(平平)하게 처리하고 시유(施釉)치 않았으나 기면내외(器面內外)에는 청백색(靑白色)의 유약(釉藥)을 시유(施釉)하여 청아(淸雅)한 멋을 더욱 갖게 하고 있고 기벽등이 얇게 처리 구워낸 경덕진요계(景德鎮窯系)의 청백자(靑白磁)접시이다.

○청백자양각도문접시(靑白磁陽刻桃文접시)(圖 5)

실측치(實測值): 높이 1.1cm
 구경(口徑) 16.3cm

타원형으로 된 청백자(靑白磁)접시로 구연부(口緣部)는 외반(外反)되어 넓은 전을 이룬듯 하며 이 전주연에는 1조(條)의 음각선대(陰刻線帶)를 돌리고 있다. 접시의 내면에는 잎을 갖춘 휘어진 복숭아 나무 3가지를 양각(陽刻)으로 조출(彫出)하여 3가지마다 1개(個)씩의 복숭아를 도돌무늬로 각출(刻出)시킨것이 특색이다.

유약(釉藥)의 발색(發色)은 청백자(靑白磁) 유약(釉藥)으로 청아(清雅)하며 접시바닥은 평평하게 처리하고 시유(施釉)치 않았다.

전체적인 접시의 기형벽은 얇게 처리하여 구워낸 것이 특색이며 이 도문(桃文)접시 역시 경덕진요계(景德鎮窯系)의 청백자(靑白磁)이다.

○청백자화형잔(靑白磁花形盞)

| | | |
|-----------|--------|-------|
| 실측도(實測圖): | 높이 | 3.5cm |
| | 구경(口徑) | 7.3cm |
| | 저경(底徑) | 2.7cm |

전체(全體)에 청백자(靑白磁) 유약(釉藥)을 시유(施釉)하여 발색(發色)이 아름다운 잔(盞)으로 형태는 꽃잎 다섯잎이 만개(滿開)한 듯한 형태의 잔(盞)으로 되어있으며 언뜻 보기에 는 매화(梅花)가 반쯤 핀것 같은 형상이다.

이와같은 형(形)의 잔(盞)은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유약(釉藥)의 시유방법(施釉方法)이나 발색(發色)으로 보아 역시 경덕진요계(景德鎮窯系)의 청백자(靑白磁)로 보인다.

○백자철화천록문접시(白磁鐵畫天鹿文접시)(圖 6-1, 6-2)

| | | |
|-----------|----|--------|
| 실측도(實測圖): | 높이 | 3.4cm |
| | 구경 | 12.2cm |
| | 저경 | 7.1cm |

백자(白磁)의 유색(釉色)이 별로 뛰어난지 않은 원형의 접시이나 기내면(器內面)에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특이한 수법(手法)으로 된 접시이다. 내면(內面)에는 철사채(鐵砂彩)로 천록(天鹿)이 불로초(不老草)를 물고 있는 그림을 그렸으며 그 수법(手法)은 일반도자기에서 사용되는 수법과는 달리 상당한 필법(筆法)을 사용하여 생동감(生動感) 넘치게 철화(鐵畫)로 그린 천록문(天鹿文)이며 지금까지 출토(出土)인양된 유물중 철화문(鐵畫紋) 백자중(白磁中) 유일(唯一)한 예(例)의 하나이다.

○백자철화매화문접시(白磁鐵畫梅花文접시)(圖 7)

| | | |
|-----------|--------|--------|
| 실측치(實測值): | 높이 | 3.4cm |
| | 구경(口徑) | 12.2cm |
| | 저경(底徑) | 7.1cm |

백자유색(白磁釉色)이 뛰어난 것은 아니나 접시내면 바닥에 철채(鐵彩)로 매화(梅花)를 동양화수법(東洋畫手法)으로 그려있는데 이는 일반 동양화의 회화수법(繪畫手法)과 동일하게 그린 원숙한 필치의 철채매화(鐵彩梅花)이다.

○백자철화토문접시(白磁鐵畫兔文접시)

| | | |
|-----------|--------|--------|
| 실측치(實測值): | 높이 | 3.4cm |
| | 구경(口徑) | 12.2cm |
| | 저경(底徑) | 7.1cm |

백자유약(白磁釉藥)으로 시유(施釉)된 원형의 접시로 굵은 낮은 편이나 접시 내면(內面)바닥에는 이것 역시 철채(鐵彩)로 토끼 한마리와 불로초(不老草)를 원숙한 필치로 동양화적(東洋畫的) 회화풍(繪畫風)의 수법(手法)을 구사한 철화(鐵畫)가 있으며 희귀(稀貴)한 유품중(遺

品中) 하나이다.

○백자철화천록월문접시(白磁鐵畫天鹿月文접시)(圖 8)

실측치(實測值): 높이 3.4cm
구경(口徑) 12.2cm
저경(底徑) 7.1cm

역시 백자유약(白磁釉藥)의 발색(發色)이 그렇게 우수(優秀)하지 않는 원형의 접시로 굵은 낮은편이다. 접시 내면 바닥에도 철채(鐵彩)로 초생(初生)달과 이달을 띄면서 고개를 돌려 쳐다 보는것 같은 모습의 천록(天鹿)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도 동양화적(東洋畫的)인 원숙한 필치로 그려져 있으며 고요한 야월(夜月)의 정경을 정감있게 표현한 그림으로 철화백자의 희귀한 유품중(遺品中) 하나이다.

○백자철화목단문접시(白磁鐵畫牡丹文접시)(圖 9)

실측치(實測值): 높이 3.4cm
구경(口徑) 12.2cm
저경(底徑) 7.1cm

낮은 굽에 원형의 백자(白磁)접시로 내면 중앙바닥에 철채(鐵彩)로 목단(牡丹)꽃가지를 그리고 주지(主枝)에서 세가닥의 지지(支枝)가 바닥 가득히 휘어져 뻗힌듯이 그려있고 바닥 중앙에 만개(滿開)한 모란(牡丹) 한 송이를 원숙한 필치로 사실성 있게 그려져 있다. 이것 역시 동양화적(東洋畫的)인 회화(繪畫) 수법(手法)으로 구도(構圖)가 특이하고 세련된 기법(技法)을 구사한 철채화(鐵彩畫)이다.

○백자철화연화문접시(白磁鐵畫蓮花文접시)

실측치(實測值): 높이 3.4cm
구경(口徑) 12.2cm
저경(底徑) 7.1cm

역시 원형접시에 내면(內面) 중앙(中央)바닥에 연화(蓮花)와 연엽(蓮葉)을 가득히 그려져 있다. 그 기법(技法)이나 구도(構圖)가 특이하게 원숙한 동양화(東洋畫)의 회화수법(繪畫手法)을 발휘한 철채화(鐵彩畫)이다.

이상의 6점의 백자철화문(白磁鐵畫文) 접시등은 일괄 유물로서 그 형태와 크기가 동일 한 것이다. 다만 내면중앙(內面中央)바닥에 철채(鐵彩)로 그린 그림이 매화(梅花), 목단(牡丹), 연화(蓮花), 천록(天鹿), 토문(兔文)등이 다를 뿐이다.

발굴현장(發掘現場)에서 인양(引揚)수습할때는 파손된 접시도 있었으나 대개 10여개가 되는 접시로 나란히 포개져 상자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철화문(鐵畫文) 백자(白磁)의 그림은 동양화(東洋畫)에서 쓰이는 수묵화(水墨畫)의 기법(技法)으로 원숙한 필치를 구사하는 화가에 의해 그려졌다고 보며 특히 목단(牡丹)이나 연화(蓮花)를 그린 철화(鐵畫)접시는 세필(細筆)의 묘사법(描寫法)이고 천록(天鹿)이나 토문(兔文)을 그린 기법(技法)은 몰골법(沒骨法)의 강한 필법이 아닌가 한다.

전체적으로 백자(白磁)의 기형과 기벽은 투박한 편이며 유약 역시 청백자계통(靑白磁系統)의 백자유약(白磁釉藥)이 아니라 회백색(灰白色)의 백자유(白磁釉)가 시유(施釉)된 점이 특이(特異)하다.

또한 철화백자(鐵畫白磁)가 수묵화(水墨畫)의 원숙한 기법(技法)을 원대자기(元代磁器)에서도 한 것이 인양된 점도 중요하거니와 아울러 회화사적(繪畫史的)으로 볼때 도자기에 시

초(始初)로 철채(鐵彩)로 시도한 것은 원대(元代)의 자주요계통(磁州窯系統)의 도자기에서 비롯되는 바 이번에 발견 인양된 백자철화문(白磁鐵畫文)접시 등은 이와같은 자주요(磁州窯)계통의 자기인지 아니면 그후의 경덕진요(景德鎮窯)계통의 백자(白磁)인지는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요계(窯系)를 구명(究明)하여야 할 줄로 안다.

○청백자초화문완(靑白磁草花文碗)

실측치(實測值): 높이 6.6cm
 구경(口徑) 17.8cm
 저경(底徑) 5.6cm

낮은 굽을 갖춘 청백자완(靑白磁碗)으로 유색(釉色)은 청백(靑白)의 발색(發色)을 내는 백자유색(白磁釉色)이다. 기면(器面)의 외부(外部)는 소문(素文)으로 처리하였으나 내면(內面)은 구연부(口緣部) 가까이 뇌문대(雷文帶)를 1조(條) 돌리고 그 밑으로 국화(菊花), 목단(牡丹), 매화(梅花), 연화(蓮花)등을 양각(陽刻)으로 조화(調和)있게 교대로 만개한 채 조식(彫飾)하고 있으며 내면(內面) 중앙(中央)바닥에는 2개의 연화(蓮花)와 연엽(蓮葉)을 양각(陽刻)으로 가득히 조출(彫出) 장식하였다. 그러나 구연부 주연은 그릇을 얹어서 굽는 솜법에 의해 유약이 묻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이나 이 구연부(口緣部)에도 어떤 금속제에 띠를 입힌 듯한 형태가 남아 있다.

○백자소형완(白磁小形碗)

약간 높은 기대를 갖춘 소형(小形)의 완(碗)으로 언뜻 보기에 는 잔(盞)과 유사하다.

기체(器體)의 내외면(內外面)에다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소형(小形)의 것이다. 청백색(靑白色)의 백자유약(白磁釉藥)은 상당히 우수하게 시유(施釉)한 것으로 단아하고 청결한 멋을 풍기고 있다.

○청백자삼족향로(靑白磁三足香爐)(圖 10)

실측치(實測值): 높이 5.5cm
 경(徑) 10.5cm

타원형청백자향로(橢圓形靑白磁香爐)로 기체(器體)에는 삼족(三足)의 수각형족대(獸脚形足臺)를 갖추고 있고 몸체 외부면(外部面)에는 양각선조문(陽刻線條文)으로 뇌문(雷文)과 여의두문(如意頭文)으로 장식각출(刻出)하였고 간지(間地)에는 작은 연주문(連珠文)으로 채웠다.

타원형의 구연부양측(口緣部兩側)에는 각형(角形)의 작은 손잡이를 배치 부착시켰으며, 향로 내부(內部)는 외부기면(外部器面)과는 달리 청백(靑白)의 백자유약(白磁釉藥)을 시유(施釉)치 않았다. 이런 예(例)의 향로는 지금까지 출토(出土) 인양된 예(例)가 없는 향로이다.

○백자표형주자(白磁瓢形注子)

실측치(實測值): 높이 11.7cm

뚜껑을 상실한 표주박형의 주자(注子)로 기체전면(器體全面)에 백자유약(白磁釉藥)이 시유(施釉)되어 있으나 유약(釉藥)의 발색(發色)은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 주구(注口)는 휘어져 앞으로 쪽뻗어 있으며 상부동체와 하부(下部)동체에 연(連)이어 붙어있는 손잡이는 앞발과 뒷발로 주자(注子)의 몸체를 힘있게 뚫고 입으로 물어서 들어올리며 용솟음치듯한 형로된 어룡형(魚龍形)의 손잡이를 부착하였다.

○청백자양각초화문주자(靑白磁陽刻草花文注子)

실측치(實測值): 높이 17.3cm

뚜껑을 상실하고 주자(注子) 몸체만 있는 것으로 기체전면(器體全面)은 청백(靑白)의 유약(釉藥)이 시유(施釉)되어 있으며 주구(注口)는 직립하다가 곡선(曲線)을 이룬 듯 끝부분에서

휘어져 있다.

동체(胴體)는 상하(上下) 2단의 태선(太線)으로 구분하고 그 내면(內面)에 초화문(草花文)을 양각(陽刻)하였으며 하단부(下端部)에서 기대(器臺)부분에 이르는 곳까지 도식(圖式)된 당초엽문(唐草葉文)을 큼직하게 등(等)간격으로 하여 양각(陽刻)으로 장식(彫飾)하고 있다. 주자(注子)의 손잡이는 만곡(彎曲)을 이루고 있고 상단부에는 환형(環形)의 작은 고리를 부착시켜 주자(注子)뚜껑을 매어 달게 하고 있다.

○ 청백자양각도철문관이병(靑白磁陽刻鑿文管耳瓶)

실측치(實測值): 높이 17.1cm
구경(口徑) 3.7cm
저경(底徑) 5.9cm

청백색(靑白色)의 백자유약(白磁釉藥)이 시유(施釉)되어 있는 편형(扁形)의 관이병(管耳瓶)으로 고대(高臺)위에 장경(長徑)과 양관이(兩管耳)를 갖춘 형태로서 경부(頸部)에서 동체하부(胴體下部)까지 3단(段)의 구획횡선대(區劃橫線帶)를 설치하고 상단(上段)의 구획내(區劃內)에는 세(細)잔한 연주문대(蓮珠文帶)와 와문(渦文)을 장식(彫飾)하였으며 하단(下段)의 구획내(區劃內)에는 연주문(蓮珠文)을 상하(上下)로 장식(彫飾)하고 중간부(中間部)는 양각(陽刻)으로 도철문(鑿文)을 화려하게 장식(彫飾)하였다. 약간 높은 기대(器臺)는 최하부(最下部)가 외반(外反)되어 있으며 기대내저부(器臺內底部)는 시유(施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역시 경덕진요계(景德鎮窯系)의 편형병(扁形瓶)으로 생각된다.

○ 청백자인물좌상(靑白磁人物座像)(圖 11)

실측치(實測值): 높이 12cm
저경(底徑) 9.4cm

청백(靑白)의 백자유약(白磁釉藥)으로 시유(施釉)된 인물좌상(人物座像)이나 현재 머리부분은 결실(缺失)되어 완전(完全)한 인물상(人物像)의 구분(區分)을 알 수 없다.

형태는 앉은 자세가 한발은 내리고 한발은 무릎위에 얹은 반가상(半跏像)의 자세이고 상부의 몸체는 7엽(葉)의 초엽(草葉)으로 의문(衣文)대신 장식(彫飾)하여 조화(調和)를 이루고 있고 양(兩)손에는 경전(經典)과 같은 권물(卷物)을 들고 있다. 허리 아래부분은 양측에 초엽(草葉) 1엽(葉)씩으로 장식(彫飾)하고 앞부분은 넓다란 연엽(蓮葉)으로 장식하여 있어 자연미(自然美)를 더하고 있고 특히 연엽(蓮葉)위에는 옷주름 두가락을 연(蓮)줄기로 표현(表現)하고 있는 것이 주목(注目)된다.

반가(半跏)한 무릎옆에는 항아리같은 것이 놓여 있고 발밑 옆에는 양(羊)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그리고 반가상배면(半跏像背面)은 빙병(氷瓶)을 걸머지고 있다. 암반(岩盤)과 같은 것의 위에 걸터 앉아있는 청백자인물좌상(靑白磁人物座像)은 매우 정교한 수법의 것이다.

○ 청자당초연관문항아리(靑磁唐草蓮瓣文항아리)

실측치(實測值): 높이 15.1cm
구경(口徑) 14.6cm
저경(底徑) 11.1cm

청자(靑磁)항아리 견부(肩部)에는 연결된 당초문(唐草文)이 화려하게 장식(彫飾)되어 있고 동체(胴體) 하부(下部) 외곽(外廓)에는 연(蓮)꽃이 양연(仰蓮)으로 장식(彫飾)되어 있다.

특(特)히 항아리 기대(器臺)는 동시(同時)에 제작(製作)되지 않고 별도(別途)로 제작(製作)되어 접착(接着)시킨 것으로 짙은 녹색(綠色)의 청자유약(靑磁釉藥)이 두껍게 시유(施釉)된

당시(當時)의 특징(特徵)을 잘 보여주는 항아리이다.

○흑유유두문소호(黑釉乳頭文小壺)

실측치(實測值): 높이 10cm
구경(口徑) 9cm

형태(形態)는 전면(全面)에 흑갈색의 철유(鐵釉)를 질게 시유(施釉)한 소호(小壺)로서 경부(頸部)는 직립(直立)하고 구연(口緣)은 외반(外反)되어 전을 이룬듯 하다.

소호(小壺)의 동체(胴體)는 기대(器臺)는 생략(省略)한 채 원형(圓形)으로 되어 있으며 직립(直立)한 경부(頸部)에는 유두(乳頭)와 같은 돌기(突起) 14개를 등간격(等間隔)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돌기(突起)의 정부(頂部)에는 흑갈색(黑褐色)의 동체유약(胴體釉藥)과는 달리 짙은 청색(靑色)의 유약(釉藥)이 시유(施釉)되어 있어 유난히 돋보인다.

○석제일각쌍수상(石製一角雙獸像)(圖 12)

실측치(實測值): 높이 6cm
길이 13.9cm
폭 3.8cm

흑색(黑色)의 돌에 뿔이 하나인 두마리의 동물을 앉은 모양으로 조각한 수상(獸像)으로 같은 모양이며 고개를 쳐들고 입을 굳게 다물고 두눈은 부릅뜨고 있어 사나운 형태이며 두 귀는 쫓긋하게 세워 있다. 머리정상에는 각(各) 1개(個)씩의 1각(角)을 갖추고 있고 4족(足)은 동일한 형태로 구부리고 앉아있는 것으로 발톱은 우돈(牛豚)의 발톱과 유사(類似)한 두 쪽이며 꼬리는 길게하여 둔부에 부착되게 조식했다. 수상(獸像)의 하부(下部)는 평면(平面)으로 처리하였으나 상당히 오랜동안 사용하였던 마모된 흔적이 남아있어 선내(船內)에서 일상(日常)시 짐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서진(書鎮)이 아니었는가 한다.

○금속자물쇠(金屬자물쇠)

실측치(實測值): 길이 13.3cm
폭 3.2cm

주석류(朱錫類)와 같은 금속제(金屬製)로 만든 자물쇠로서 표면(表面)에는 세선(細線)으로 초화문(草花文)을 장식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반다지와 장농등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자물쇠이다.

○금속제삼족섬여(金屬製三足蟾蜍)(圖 13)

실측치(實測值): 길이 10.5cm
높이 4.5cm

흑청색의 녹이 덮여 있는데 발이 3개 달린 특이한 두꺼비로 등에는 둥근 구멍이 하나 뚫려있고 머리에서 복부(腹部)까지 여러 개의 도두락선(線) 무늬가 새겨졌으며 두꺼비 배에는 6개의 또 다른 돌기가 장식된 특이한 형상의 것이며 아마도 수적(水滴) 즉(卽) 연적(硯滴)으로 사용한 듯한 것으로 본다.

○녹문아인(鹿文雅引)(圖 14)

실측치(實測值): 높이 3cm
폭 2.5cm

오뚜기같은 모양으로 한면에는 글씨가 양각으로 새겨있고 그 밑에는 사슴 한마리가 양각으로 앉은 자세로 각출(刻出)되어 있는 수결용인장(手決用印章)이 아니었는가 한다.

○목제인물입상(木製人物立像)

실측치(實測值): 높이 28cm

원만한 상호(相好)에 미소를 머금고 양이(兩耳)는 크게 드리워져 있으며 머리에는 두건(頭巾)과 유사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목에는 보살(菩薩)이나 여래상(如來像)에서 보이는 삼도(三道)는 없고 법의(法衣)와 같은 의복(衣服)을 통견(通肩)으로 걸치고 있으나 허리에는 띠를 매었다.

특(特)히 양수(兩手)와 양족(兩足)은 별도(別途)로 제작(製作) 조립식(組立式)으로 부착(附着)하였던 듯 싶으나 결실(缺失)되어 없다. 신안해저발굴에서는 처음 출토된 유물로서 보살상(菩薩像)과 유사하나 한편 도교적(道敎的)인 요소가 있는 인물상(人物像)같기도 하다.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圖 18)

실측치(實測值): 높이 9.1cm

현재 상태로는 청동제(靑銅製)이나 여러곳에 금박(金箔)이 남아있어 당초에는 전면(全面)에 도금(鍍金)한 금동제(金銅製)였음을 알 수있고 머리에는 꼬갈형(形)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양수인(兩手引)은 시무여원인(施無與願印)과 같이 양수(兩手)를 위아래로 벌리고 있다.

특(特)히 우수(右手)에는 정병(淨瓶)과 유사한 수병(水瓶)을 들고 있으며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양수(兩手)를 거쳐 천의(天衣)가 흘러 내려져 있으며 상호(相好)의 모습이나 몸체의 법의(法衣) 등이 뚜렷치 않아 확실하게 보살상(菩薩像)으로 인정(認定)키 어렵다.

언뜻 보기에는 도교적(道敎的)인 색체가 농후한 신선적(神仙的) 선인상(仙人像)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는 인물입상(人物立像)이다.

조상수법(彫像手法)은 몹시 간략 도식화된 것으로 정확한 의문(衣文)과 상호(相好)의 판정 등은 보존 처리 후 명확(明確)하여 질 것으로 본다.

단지 입상(立像)의 대좌(臺座)는 원형으로 중간대좌를 구비한 양련(仰蓮)과 복련(覆蓮)을 갖춘 대좌이고 입상(立像)을 고정(固定)시키는 원형(圓形)의 꼭지가 대좌하부중앙(臺座下部中央)에 설치되어 있는 바 이점으로 볼때는 보살(菩薩)로도 보기 쉬운 것이다.

○유리비너형봉(유리비너形棒)

실측치(實測值): 길이 16.1cm

비너형봉(形棒) 머리부분(部分)은 청색(靑色) 꽃모양을 하고 긴 몸통은 짙은 녹색(綠色)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머리에 꽂은 장식용의 비너로 보는 유물로서 처음 출토되었다.

② 1983년도 발굴 인양정리 유물중 특이한 것

○청백자양각쌍엽명문접시(靑白磁陽刻雙葉銘文접시)(圖 15)

실측치(實測值): 높이 1.1cm

구경(口徑) 16.3cm

저경(底徑) 14cm

이미 1977년도에 D₁-46(15.1×13.2×1.1cm)에서 출토(出土)된 바 있는 쌍엽문(雙葉文) 접시와 같은 형태이다. 다른 점은 청백자(靑白磁)의 유색(釉色)이 더 맑고 아름다우며 그 형태는 타원형의 접시로 기면 내부에는 진사유(辰砂釉)로 붉은 색을 연하게 칠하고 도두라지게 나뭇잎 두개를 새겼으며 또한 나뭇잎에는 진사유(辰砂釉) 이외(以外)에 녹유(綠油)를 연하게 시유(施釉)하여 더욱 생동감있게 하였다.

특히 쌍엽(雙葉)의 나뭇잎 속에는 짙은 철사유약(鐵砂釉藥)으로 「유수하우급(流水何尤急), 심궁잠전한(深宮岑田閑)」이라는 5언(言) 한시(漢詩) 두 귀절이 쓰여있어 시문(詩文)의 명문(銘文)이 있는 접시로 청백색(靑白色)의 백자(白磁)에 그 아름다움을 더하여주는 접시

로 지금까지 출토(出土)인양된 도자기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唯一)의 청백자(靑白磁) 접시이며 시문(詩文)을 해석하여 보면

「흐르는 물은 어찌 그렇게 급하며 깊은 궁궐과 산속의 맑은 종일토록 그렇게 한가롭다」라는 뜻이며 당시 시문격조(詩文格調)와 풍류를 짐작케하는 명품중(名品中)의 하나로 본다.

일개의 청백자(靑白磁)접시에 진사(辰砂), 녹유(綠油), 철사(鐵砂)를 동시에 사용할 것으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청백자음각연화문접시(靑白磁陰刻蓮花文접시)

실측치(實測值): 높이 2.4cm
구경(口徑) 14.9cm
저경(底徑) 4.2cm

기벽(器壁)이 얇은 청백자(靑白磁)접시로서 구연부(口緣部)에는 유약(釉藥)을 시유(施釉)치 않아 거친 태토(胎土)가 노출(露出)되어 있고 기면(器面)의 내부중앙(內部中央) 바닥에는 8판(瓣)의 연화(蓮花)를 음각(陰刻)으로 장식하였는데 흡사 연화문(蓮花文) 막새기와 같은 감을 주는 특이(特異)한 청백(靑白)접시이다.

○청자투각연화문양이화병(靑磁透刻蓮花文兩耳花瓶)(圖 16)

실측치(實測值): 높이 18.8cm
구경(口徑) 7.7cm
저경(底徑) 4.6cm

기형(器形)은 구연(口緣)이 몹시 외반(外反)하여 나팔형으로 되어있고 장경(長頸)의 경부(頸部)를 갖추고 있다. 동체(胴體)는 투각(透刻)으로 만개(滿開)한 연화(蓮花)와 연판(蓮瓣) 1엽(葉)을 1식(式)으로 하여 4면에 배치하였고 그 내부(內部) 통형(筒形)의 몸체를 경부(頸部)와 연결하였다. 동체하부(胴體下部)는 잔잔한 과도무늬가 선각(線刻)으로 조식(彫飾)되어 있으며 기대(器臺)는 원형이단(圓形二段)의 기대(器臺)이나 저면(底面)에는 시유(施釉)치 않았다.

특(特)히 장경(長頸)의 경부(頸部) 양측(兩側)에는 상형(象形)의 양이(兩耳)를 부착(附着)하였으며 상형두(象形頭)는 환형(環形)의 고리 1개식(個式)을 물고 있다.

화병전체(花瓶全體)의 유약(釉藥)은 녹색(綠色)에 가까운 청자유약(靑磁釉藥)이 두껍게 시유(施釉)되어 있어 용천계청약(龍泉系靑藥)임을 알 수 있으나 이런 류(類)의 투각화병(透刻花瓶)은 지금까지 출토(出土)인양된 유물중 단 2개(個)뿐으로 귀중한 청자화병(靑磁花瓶)이다.

○청자음각목단당초문접시(靑磁陰刻牡丹唐草文접시)

실측치(實測值): 높이 5.5cm
구경(口徑) 26.7cm
저경(底徑) 18cm

대형(大型)의 접시로 굵이 낮고 넓다. 접시 내면 중앙바닥에는 목단(牡丹)을 음각으로 조식(彫飾)하고 둘레에는 당초문(唐草文)을 또다시 음각(陰刻)으로 조식(彫飾)하였다. 접시의 외부(外部) 기면(器面)에는 3조(條)의 음각세선(陰刻細線)과 연화(蓮花)를 조식(彫飾)하고 있다.

기체(器體)의 유약(釉藥)은 녹색(綠色)의 청자유약(靑磁釉藥)을 고르게 시유(施釉)하고 있는 우수(優秀)한 용천요(龍泉窯)청자 대형(大型)접시이다.

○청자양각목단문합(靑磁陽刻牡丹文盒)

실측치(實測值): 높이 4.5cm
구경(口徑) 10.8cm
저경(底徑) 4.8cm

청자합(靑磁盒)의 뚜껑에는 두송이의 모란꽃을 대칭으로 도두라지게 각출(刻出)하였고 합(盒)의 내부(內部)에는 3개(個)의 작은 분잔(粉盞)을 서로 붙여서 배치(配置)하였고 특히 내부(內部)의 작은 분잔(粉盞) 구연부(口緣部) 중앙(中央)에는 3각형(角形)의 꽃과 풀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합(盒)은 여인(女人)들의 화장용기(化粧用器)들로 사용(使用)되었었던 것으로 보며 제작수법이 몹시 정교하다.

○청자삼족향로(靑磁三足香爐)

실측치(實測值): 높이 16cm
구경(口徑) 22cm

구연(口緣)이 외반(外反)되어 전을 이룬듯하며 향로(香爐)의 경부(頸部)는 직립(直立)하고 있고 몸체는 둥글게 하였으나 저부(底部)에는 삼족(三足)을 달고 있다. 특히 삼족(三足)의 각부외(外)면과 동체와의 연결부에는 1단 높게 도두라진 띠 형태의 것을 하여 각구획면(各區劃面)이 나누어져 있는 듯하다. 유약은 해맑은 청자유약이다.

○목제목단동자문장식(木製牡丹童子文裝飾)(圖 17)

실측치(實測值): 높이 3.6cm
길이 14.1cm
두께 1.2cm

모란꽃과 연잎줄기를 얹혀서 활처럼 굽은 형태로 조각(彫刻)하였고 중앙(中央)에는 줄기를 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동자상(童子像)을 조각하였다.

매우 섬세하고 세련된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기물(器物)에 부착(附着)되어 있었던 장식물(裝飾物)의 일부분(一部分)으로 보이며 그 수법이 정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목공예기법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백자봉황형주자(白磁鳳凰形注子)

실측치(實測值): 높이 10cm
구경(口徑) 2.2cm
저경(底徑) 7.5cm

주자(注子)의 몸체 상단에는 봉황(鳳凰)날개를 장식하고 주구(注口)는 봉황(鳳凰)의 머리로 장식하였다. 손잡이는 운문형태(雲文形態)로 표현(表現)하여 부착(附着)한 청백(靑白)의 유약(釉藥)을 시유(施釉)한 주자(注子)이다.

○흑유잔(黑釉盞)

실측치(實測值): 높이 6.8cm
구경(口徑) 12.2cm
저경(底徑) 3.8cm

잔(盞)의 내외면(內外面)을 농도(濃度)가 짙은 흑유(黑釉)로 덮여 있으며 그 위로 산화철(酸化鐵)의 유약(釉藥)이 비오듯 흘러 내려 잔(盞)의 멋을 더하여 주는 흑유잔(黑釉盞)이다.

○은제정병(銀製淨瓶)

실측치(實測值): 높이 21.4cm
구경(口徑) 0.8cm
저경(底徑) 3.9cm

소형(小形)의 은제정병(銀製淨瓶)으로 작은 주구(注口)를 동체(胴體)에 갖고 있으며 동체(胴體) 상단견부(上段肩部) 가까이에는 양각(陽刻)의 화문(花文)을 주회(周廻)하였고 그 밑으로 음각(陰刻)의 3조선대(條線帶)를 돌리고 있다. 특히 정병(淨瓶)의 긴 목부분 중간에는 화엽형(花葉形)의 장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여러개의 정병이 발굴(發掘)인양 되었으나 이와같은 예(例)는 유일(唯一)한 것이다.

③ 목 간(木簡)

1982년도에는 328점에 이르는 많은 양의 목간(木簡)이 발굴인양 되었다.

이들 목간(木簡)에는 묵서(墨書)로 전후면(前後面)에 문자(文字)를 기입(記入)하기도 하고 또한 한면에만 묵서(墨書)한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오랜기간 동안 침몰선(沈沒船)과 함께 해중(海中)의 뿔속에 묻혀있었던 관계로 묵서명(墨書銘)을 판독(判讀)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이들 목간중(木簡中)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 많은 묵서명(墨書銘)을 판독(判讀)케 되었는바 이들중(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물표(物表)가 많은데 「강사사(綱司私)」라고 수결(手決)한 것도 있고 「오월십일일(五月十一日)」이란 일자(日字)가 기록(記錄)된 것도 있으며 「십관(十貫)」이란 중량(重量)을 표시(表示)한 것도 보인다. 그 이외(以外)에 「십이문(十二門)」 「일전조미(一田早米)」 「감초사랑(甘草四郎)」 등의 글씨도 보이며 특히 주목할 것은 「지치삼년육월일일(至治三年六月一日)」이라는 묵서명(墨書銘)과 「동복사(東福寺)」라는 묵서명(墨書銘)이 있는 목간(木簡)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內容)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치(至治) 삼년(三年)은 서기 1323년이며 원(元)의 영종(英宗)이 죽고 진종(晉宗)이 즉위(即位)한 때이고 우리 고려로서는 충숙왕(忠肅王) 10年 6月 1일에 해당되며 침몰선의 선적화물의 연대와 출발 등을 규명하는데 지대(至大)통보와 함께 가장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절대적인 유품중 하나로 본다. 침몰선의 건조연대, 출발시기 그리고 무역자의 양식과 형태 제작연대를 측정하는데도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고 본다.

특(特)히 이들 목간(木簡)들을 살펴보면 선적한 날짜, 물건의 무게, 책임자의 성명과 수결(手決) 등 단순한 내용들이다. 날짜의 기록에서는 5월과 6월이 대부분이며 6월을 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목간(木簡)의 형태(形態)는 단책형(短冊形)이며 또 단책형(短冊形)의 끝에 구멍이 난 것 또 윗부분을 끈을 맬 수 있게 첨형(尖形)으로 다듬어 어떠한 선적(船籍)화물에 끼울 수 있게 한 것 등 또한 상(上), 하(下) 양쪽에 홈을 파서 끈으로 매어 고정시켰던 것 등 그 형태가 다양한 것들이다.

④ 자단목(紫檀木)

1982년도(年度)와 1983년도(年度)에 발굴인양(發掘引揚)된 자단목(紫檀木)은 판재(板材)로 된 것과 환목(丸木)으로 된 것 그리고 작은 각재(角材) 등 여러가지 형태의 것들이었는데 이중에는 향목재(香木材)로 보이는 것도 있으며 한편 가구재(家具材) 또는 장식재(裝飾材)로 쓰이기 위한 것들도 있었다.

82년에 452본(本)이 인양되고 83년에는 334본(本)이 인양되었으며 전체 1012본(本)이나 된다. 그런데 이들 자단목(紫檀木)의 표피(表皮) 등에는 「×」표 또는 「□」표 등과 문자(文

字)같은 표식이 각자(刻字)되어 있어 종류와 소유주(所有主)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특히 주문재(注文材)의 구분(區分)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있는 듯 하다.

⑤ 동전(銅錢)

1976년도(年度)부터 1981년도(年度)까지 발굴인양(發掘引揚)된 동전(銅錢)만도 3,000kg 즉(卽) 3t이나 되며, 1982년도 부터 1983年 11月 2日까지 인양(引揚)된 동전(銅錢)은 무려 82년에 18,000kg 83年 11月 2日 7,000kg로서 합계 25,000kg으로 25t이나 된다. 전체 인양 정리된 것은 총 28t이라는 막대한 양의 동전(銅錢)이 선체내(船體內)에서 다른 금속류와 함께 발굴인양(發掘引揚)되었다. 이 중(中) 1次에서 3次까지의 동전(銅錢)은 이미 학계(學界)나 학술보고서(學術報告書)로서 발표(發表)되었으나 82년에서 83년의 것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보존과학연구실(保存科學研究室)에서 처리(處理)과정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다. 이 처리(處理)과정에서 밝혀진 내용(內容)을 보면 대략 70여종류(餘種類)의 동전이며 동일(同一)한 연호(年號)의 동전(銅錢)이라도 자체(字體)가 다르고 크기도 서로 다른 것들임을 알게 되었으며 대략 동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동전들이다.

- 嘉祐元寶 宋仁宗嘉祐年間(1054-1055)
- 嘉祐通寶 上同
- 嘉定通寶 南宋寧宗嘉定年間(1208-1224)
- 開元通寶 唐高朝武德 4年(621), 武宗會昌 5年(845) 南唐元宗(960)
- 乾元重寶 唐肅宗乾元 2年(759)
- 景德元寶 宋眞宗景德年間(1004-1007)
- 景祐元寶 宋仁宗景祐年間(1034-1037)
- 景定元寶 南宋理宗景定年間(1260-) (小錢)
- 萬國通寶
- 大觀通寶 宋徽宗大觀年間(1107-1110)
- 大定通寶 金世宗大定15年(1175)
- 明道元寶 宋仁宗明道年間(1032-1033)
- 祥符元寶 宋眞宗祥符年間(1008-1016)
- 祥符通寶 上同
- 宣和通寶 宋徽宗宣和年間(1119-1125)
- 聖宋元寶 宋徽宗建中靖國元年(1101)
- 紹聖元寶 宋哲宗紹聖年間(1094-1097)
- 紹熙元寶 南宋光宗紹熙年間(1190-1194)
- 宋元通寶 宋太祖開寶年間(968-975)
- 淳化元寶 宋太宗淳化年間(990-994)
- 淳熙元寶 南宋孝宗淳熙年間(1174-)
- 元符通寶 宋哲宗元符年間(1098-1100)
- 元祐通寶 宋哲宗元祐年間(1086-1093)
- 元豐通寶 宋神宗元豐年間(1078-1085)
- 正隆元寶 金煬帝正隆年間(1157-)

政和通寶 宋徽宗政和年間(1111-1117)
 至道元寶 宋太宗至道年間(995-997)
 至和元寶 宋仁宗至和年間(1054-1063)
 天聖元寶 宋仁宗天聖年間(1023-1031)
 天禧通寶 宋眞宗天禧年間(1017-1021)
 治平元寶 宋英宗治平年間(1064-1067)
 治平通寶 上同
 咸平通寶 宋眞宗咸平年間(998-1003)
 皇宋通寶 宋仁宗寶元 2年(1039)
 熙寧元寶 宋神宗熙寧年間(1068-1077)
 熙寧重寶 上同
 紹定通寶 南宋理宗紹定年間(1228-1233)
 至大通寶 元武宗至大 3年(1310)

등(等)의 종류(種類)였으나 1次에서 7次까지 발굴인양(發掘引揚)된 동전류(銅錢類)와 같다. 그러나 최하년도(最下年度)로 떨어지는 것은 역시 지대통보(至大通寶)(1310)이하(以下)로는 나오지 않아 유물(遺物)들의 하한연대(下限年代)를 지대통보(至大通寶)에 기준하여 전후(前後)로 생각케되었으나 목간(木簡)에서 나온 지치(至治) 3年 6月 1日(1323年)과 4次에서 발견된 신미혜당(辛未兮塘)이라는 명문(銘文)이 주서(朱書)로 흑칠기기대(黑漆器器臺)에 기록(記錄)되어 있어 이들을 연관시켜 볼때 역시 유물(遺物)은 1323年(지치(至治) 3年)을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신미혜당(辛未兮塘)이란 것에서 신미(辛未)는 1271年과 1331年 그후 1391年에 보이는바 역시 1271年이나 1331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보며 청자(靑磁)의 기대(器臺)에 음각(陰刻)으로 「사사수부(使司帥府)」라 명기(銘記)된 명문내용(銘文內容)에 따라서는 선적(船籍)화물의 연대(年代)와 도자기(陶磁器) 및 기타 유물(遺物)들에 대(對)한 연대(年代)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⑥ 선체해체인양(船體解體引揚)

3次인 1977年에 그리트를 선체위에 설치하고 배의 크기를 대략 28.4m에 넓이는 6.6m 정도의 크기이고 선체내(內)에는 10여개의 격벽으로 구분된 선박(船舶)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1982년부터 선체(船體)를 해체인 양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본 결과 격벽은 7개부분임이 확실하여 7격벽을 갖춘 선박으로 판명되었고 선수는 격벽이 없고 사행조골(斜行助骨) 2개(個)가 있는 특이한 구조의 선박이었으며 8次인 82年 5月부터는 해체인양순서를 선미(船尾)에서 第4격벽간(隔壁間)까지의 용골(龍骨)과 좌우현(左右舷) 현판(舷板)과 방현판(防舷板) 그리고 선수(船首)의 4개조골구간(個助骨區間)의 용골(龍骨)에서 우현부재전부(右舷部材全部)를 인양(引揚)하였다.

해체인양된 선체편중(中) 넓이 67cm 두께 52cm 되는 방형(方形) 용골(龍骨)을 갖춘 첨저형(尖底形)의 좌우현(左右舷)쪽으로 각각(各各) 12판(板)의 외판(外板)이 클링커식으로 겹쳐 붙인 선박(船舶)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우현(右舷)은 12판(板) 우현(右舷)은 4판반(板半)정도가 해중(海中)뿔 속에 잔존(殘存)되어 오고 있는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좌현(左舷)의 외판(外板) 7판(板)정도는 이미 부식되어 없어져 있음도 알게됨.

이런상태로 보아 선박(船舶)은 침몰당시 침몰하면서 오른쪽으로 비스듬이 기울어져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선체외판(船體外板)에는 외판(外板)을 손상 부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두께 1cm 정도의 방현판(防舷板)을 별도(別途)로 부착(附着)시켰음도 판별(判別)하게 되었고 이 방현판(防舷板)은 두께가 약 1cm~2cm 정도이며 선박(船舶)의 본체(本體)인 외판(外板)의 두께도 약 12cm에 폭이 40~50cm정도의 송판(松板)들인 것을 또 알게 되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클링커식으로 겹붙인 곳에는 강한 접착제로 접착되어 해수(海水)의 침수(浸水)를 막고 있었으며 배의 격벽도 약 12cm두께의 송판을 접착제로 접착시켰고 각(各)격벽저부(底部)에는 선저(船底)의 오수(污水)와 누진적으로 침수(浸水)된 해수(海水)를 통하게 하는 4각의 통수공(通水孔)이 각격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遺物 引揚 現況

1983. 11. 25現在

| 구분 (區分) | 발굴기간 (發掘期間) | 종 류 별(種 類 別) | | | | | | | | 계(計) | 동전 (銅錢) (kg) | 자단목 (紫檀木) (本(本)) | 선체편 (船體片) (片) |
|--------------|----------------------|--------------|------------|------------|------------|--------------|------------|------------|------------|--------|--------------------|------------------------|---------------------|
| | | 청자 (靑磁) | 백자 (白磁) | 흑유 (黑釉) | 잡유 (雜釉) | 백탁유 (白濁釉) | 금속 (金屬) | 석재 (石材) | 기타 (其他) | | | | |
| 第1次 | 70. 10. 26~ 11. 2 | 52 | 20 | 2 | 23 | | | | | 112 | | | |
| 第2次 | 76. 11. 9~ 12. 1 | 1,201 | 421 | 54 | 9 | 18 | 12 | | 159 | 1,884 | | | |
| 第3次 | 77. 6. 27~ 7. 31 | 1,900 | 1,866 | 56 | 604 | 74 | 264 | 4 | 138 | 4,906 | | | |
| 第4次 | 78. 6. 16~ 8. 15 | 2,787 | 1,289 | 96 | 523 | 63 | 86 | 11 | 91 | 5,046 | | | |
| 第5次 | 79. 6. 1~7. 20 | 76 | 21 | 29 | 101 | | 6 | | | 233 | | 203 | |
| 第6次 | 80. 6. 5 ~ 8. 4 | 1,112 | 200 | 30 | 66 | 2 | 31 | 2 | 18 | 1,461 | | 20 | 8 |
| 第7次 | 81. 6. 23~ 8. 22 | 1,528 | 668 | 63 | 143 | 17 | 105 | 5 | 35 | 2,564 | 第1~7 次 36 | 3 | 18 |
| 第8次 | 82. 5. 5~ 9. 30 | 983 | 328 | 41 | 220 | 6 | 109 | 9 | 45 | 1,741 | 18톤 | 452 | 176 |
| 계(計) | | 9,639 | 4,813 | 371 | 1,789 | 180 | 613 | 31 | 511 | 17,947 | 21톤 | 678 | 202 |
| 第9次 | 93. 5. 30~ 11. 2 | 424 | 149 | 26 | 261 | 3 | 55 | 2 | 25 | 945 | 6톤 | 334 | 236 |
| 총누계 (總累計) | | 10,063 | 4,962 | 397 | 2,050 | 183 | 668 | 33 | 536 | 18,892 | 28톤 | 1,012 | 4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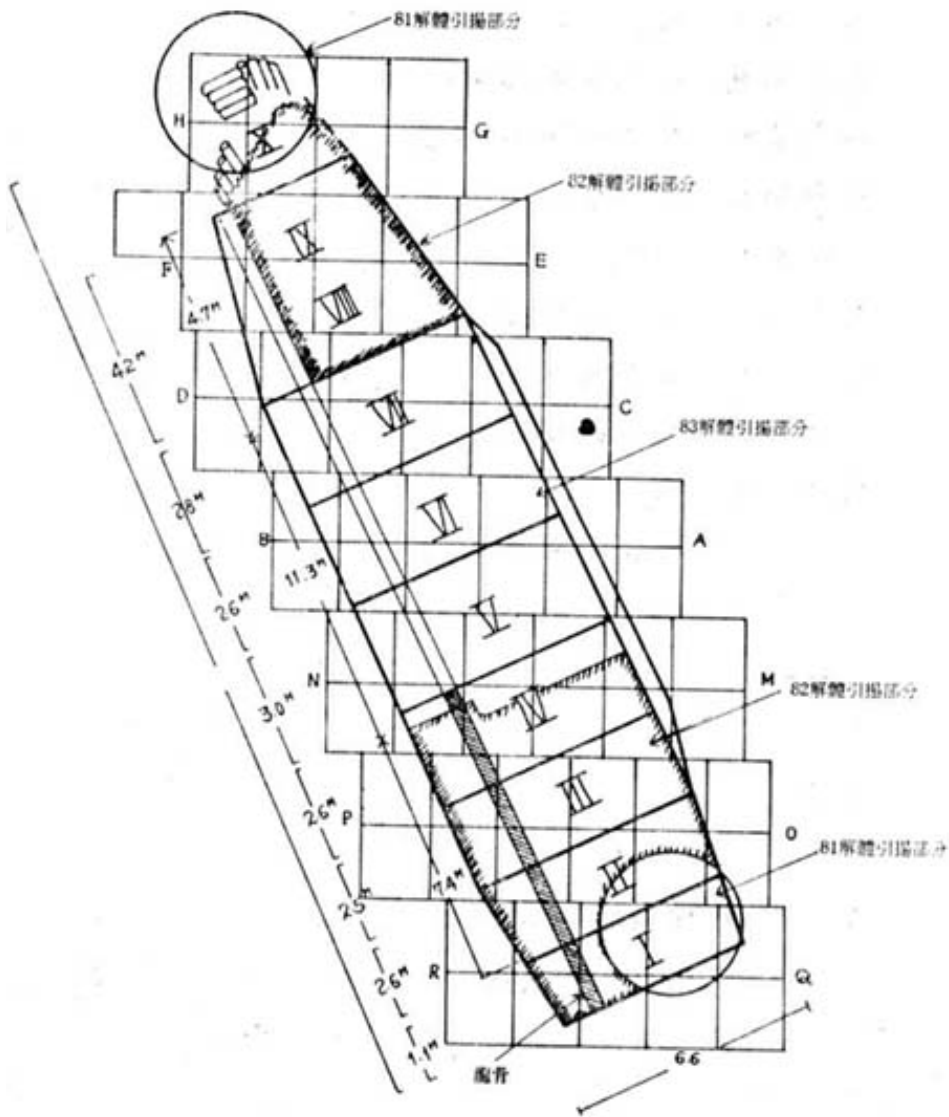
인양된 선체편중 제3격벽부를 복원하여 본바 선체(船體)의 폭이 당초 예정하였던 6.6cm보다 넓은 9m30cm를 넘는 배였다.

1982년에 인양된 선체편은 176판(板)이 었고 이 중(中) 선미(船尾)에서 第3격벽까지의 구간 저부에 있던 용골을 절단 인양한바 그 크기는 길이 7m35cm 넓이 67cm, 두께 52cm로 약 3,000kg인 3t에 가까운 무게의 거대한 송목(松木)의 용골이었다.

1983년 5월부터 실행한 제9차 발굴에서는 1982년에 실시한 선미쪽 1, 2, 3, 4구역과 선수쪽 8, 9, 10구역을 인양한데 이어 가장 중심부라 할수 있는 4, 5, 6, 7구역을 인양 완료함으로써 선체 인양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라 본다.

특히 第9次 발굴인 83년 발굴에서 큰 성과는 82년에 인양한 용골에 이어 나머지 용골을 인양하였는바 그 상태는 넓이 64cm에 두께 50cm 길이 16m에 달하는 거대(巨大)한 통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11.3m와 4.7m길이의 2개(個)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서 분해(分解) 인양하였는데 용골(龍骨)의 연결부위(連結部位)는 요철형(凹凸形)으로 견고하게 접착되어 있었으며 접착부위면(接着部位面)에 직경(直徑) 12.3cm 깊이 3cm의 원형(圓型) 홈을 파고 동경(銅鏡)(직경(直徑) 11.7cm, 두께 0.2cm)을 넣고 나무로 두껍을 씌어 놓은 것을 확인하였다.

선 체 현 황 도 般 體 現 況 圖



단 위(單位): m

흑색구획(黑色區劃)틀간격(間隔)은 2m×2m임

이상으로 볼때 침몰선의 용골은 82년도(年度)에 인양한 선미쪽 부분 7.4m를 합하여 총 23.4m가 되며 3개(個)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서 잔존한 선체의 현길이는 28.4m현폭이 6.6m 깊이 2m있는 확인하였고 금년에는 선체편 총438편(片)도 인양하였으며 대략 침몰선의 구조및 특징을 파악케 된바 그것은 서울공대(工大) 조선공학과 김재근(金在瑾) 황종흠(黃宗屹) 두 교수의 밝힌바를 요약하여 보면

○배 밑에는 거대(巨大)한 용골이 있어 배 전체를 지탱하고 있고

○배의 바닥에는 뾰족한 첨저형(尖底形)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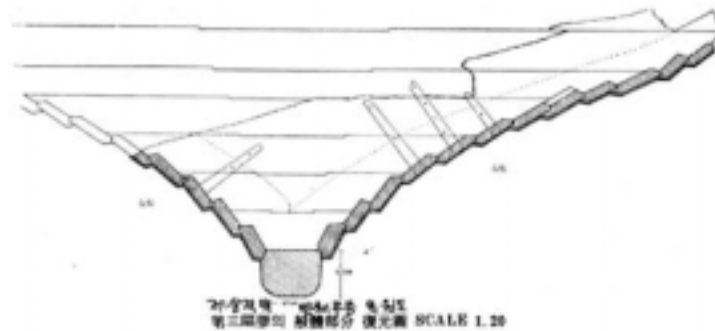
○선수(船首)는 사다리꼴 형(形)을 이루고 있다.

○선체외판(船體外板)은 겹붙이기식(式)인 크링커식으로 접합되어 있으며 좌우현(左右舷)은 각각(各各) 14판식(板式)으로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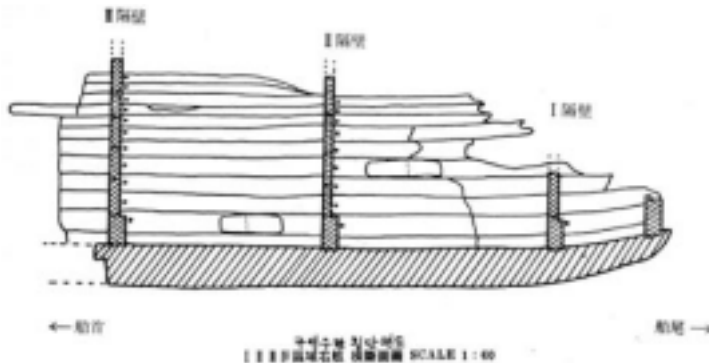
○돛대가 2개인 쌍범선이며 돛대의 하부(下部)는 용골에 고정된 받침위에 두개의 지주(支柱)를 세워 지탱하였다.(※두개의 돛대 고정장치인양)

○또한 선체 5구역내의 수조(水槽)로 추정되는 목제(木製)탱크가 있으며 이의 잔존규모는 가로 3m30cm 세로 2m33cm에 깊이 75cm로서 용량이 매우 큰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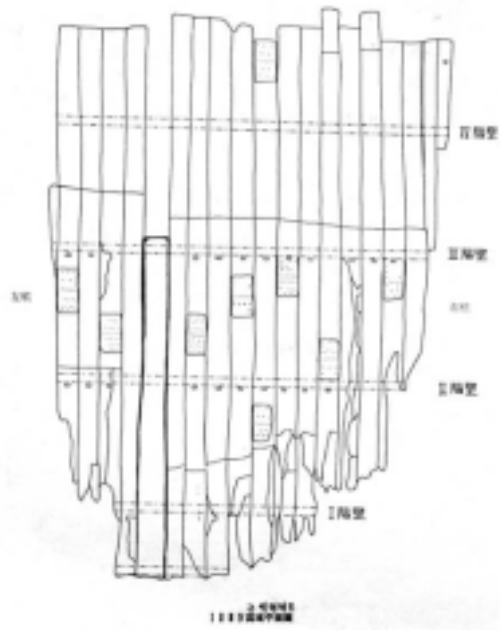
이상의 특징과 선체의 구조등을 판별(判別)내지 확인하게 되어 침몰선(沈沒船)의 상태를 거의 파악케 된것이 큰성과이며 노력의 결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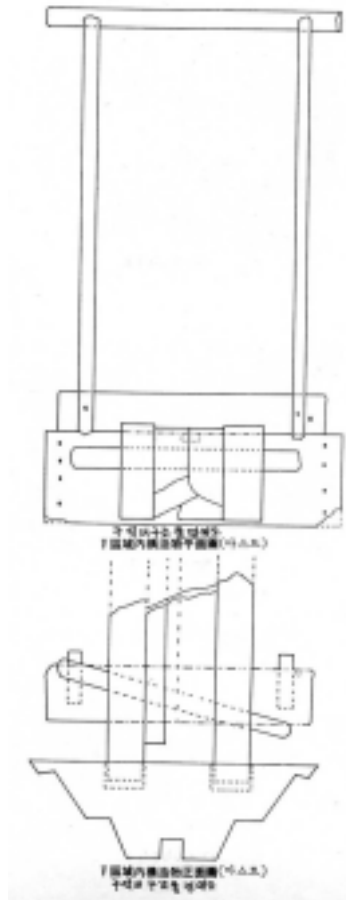
제삼격벽의 벽체부분 복원도(第三隔壁의 壁體部分 復元圖) SCALE 1. 20



I II III IV 구역우현 횡단면도(區域右舷 橫斷面圖) SCALE 1 : 60



I II III IV 구역 평면도(區域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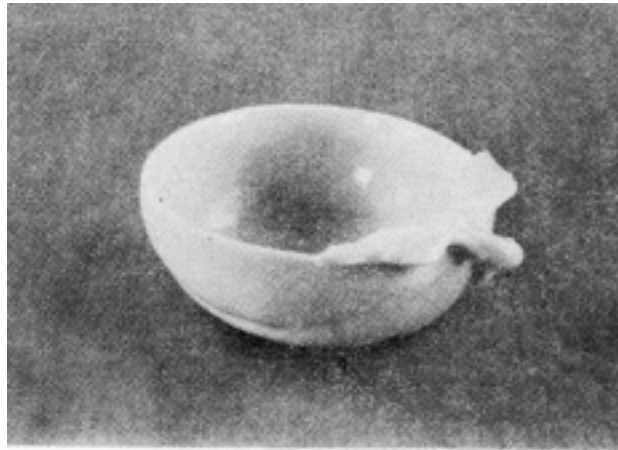


V 구역내 구조물 평면도(區域內構造物平面圖)(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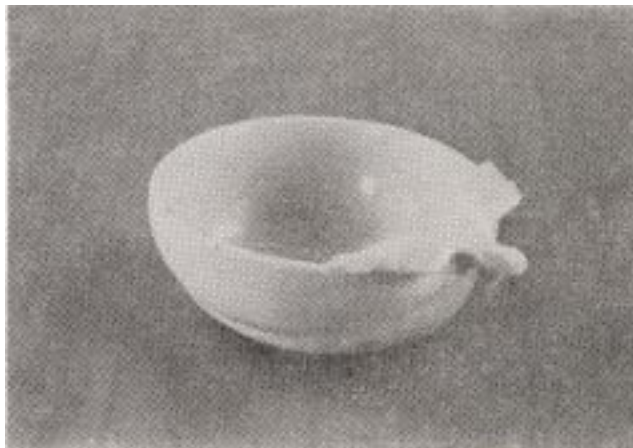
도 청자양각유명표형주자
(圖 1) 青磁陽刻有銘瓢形注子

(圖 1) 청자양각유명표형주자(青磁陽刻有銘瓢形注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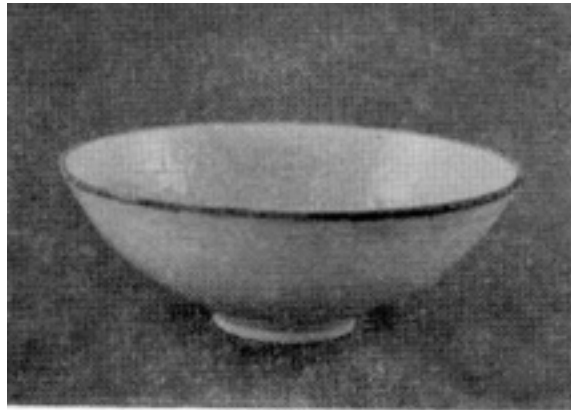


도 청백자도형배
(圖 3) 青白磁桃形杯

(圖 2) 청자도사형연적(青磁道士形硯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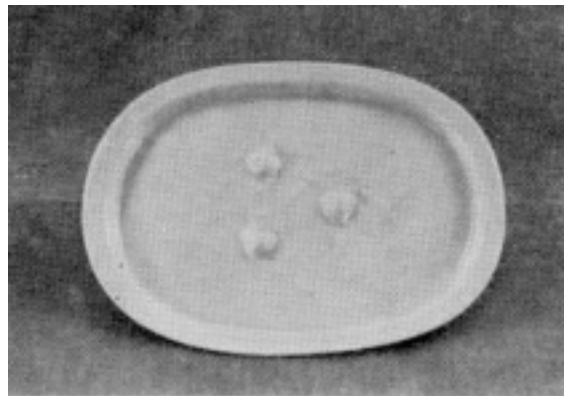


(圖 3) 청백자도형배(青白磁桃形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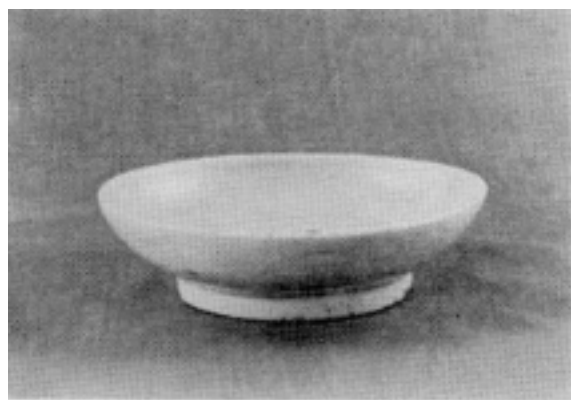
도 4 백자양각화문완
(圖 4) 白磁陽刻花文碗

(圖 4) 백자양각화문완(白磁陽刻花文碗)



도 5 청백자양각도문
(圖 5) 靑白磁陽刻挑文

(圖 5) 청백자양각도문(靑白磁陽刻挑文)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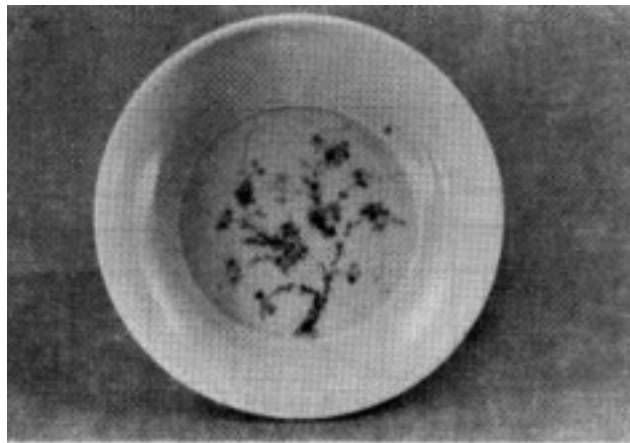


도 6-1 백자철화천록문
(圖 6-1) 白磁鐵畫天鹿文

(圖 6-1) 백자철화천록문(白磁鐵畫天鹿文)접시



(圖 6-2) 백자철화천록문(白磁鐵畫天鹿文)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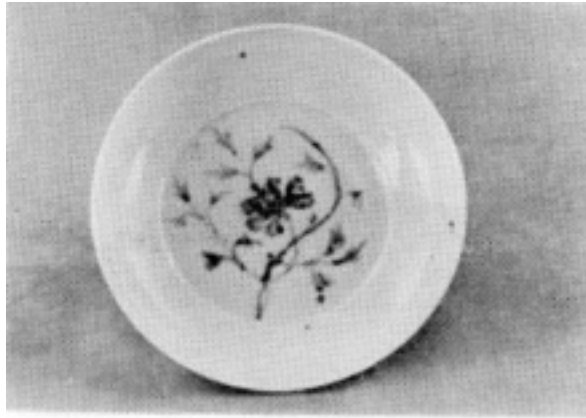
도 백자철화매화문
(圖 7) 白磁鐵畫梅花文접시

(圖 7) 백자철화매화문(白磁鐵畫梅花文)접시



도 백자철화천록월문
(圖 8) 白磁鐵畫天鹿月文접시

(圖 8) 백자철화천록월문(白磁鐵畫天鹿月文)접시



도 백자철화모단문
(圖 9) 白磁鐵畫牡丹文접시

(圖 9) 백자철화모단문(白磁鐵畫牡丹文)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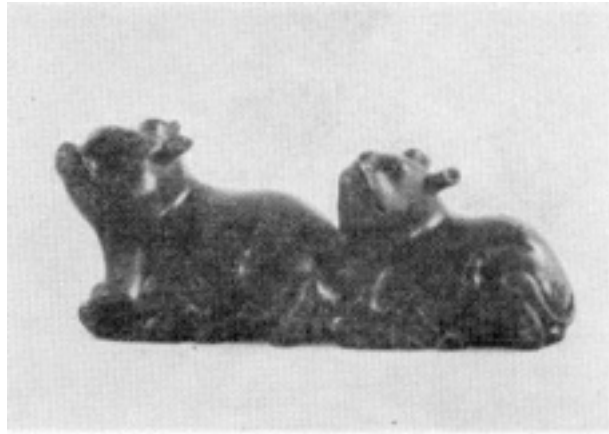
도 청백자삼족향로
(圖 10) 靑白磁三足香爐

(圖 10) 청 백자삼족향로(靑白磁三足香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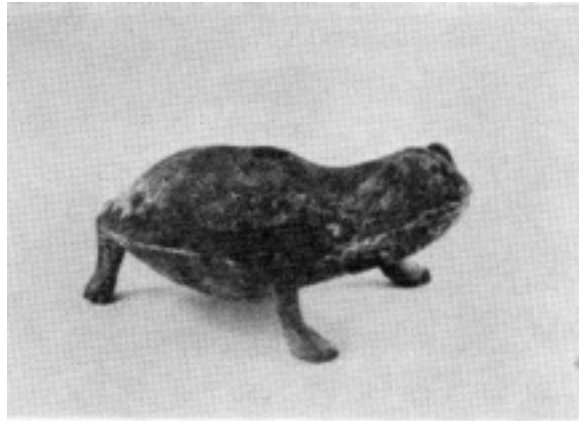
도 청백자인물좌상
(圖 11) 靑白磁人物座像

(圖 11) 청 백자인물좌상(靑白磁人物座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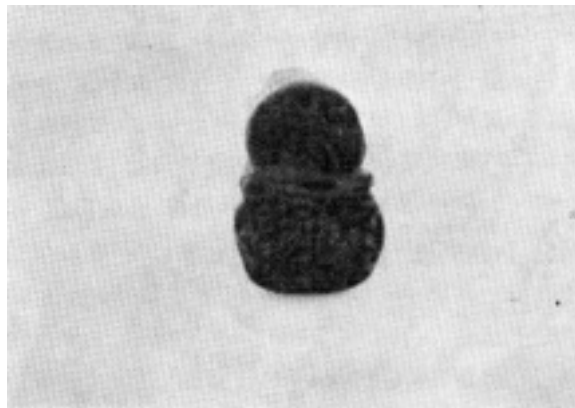
도 석제일각쌍수상
(圖 12) 石製一角雙獸像

(圖 12) 석제일각쌍수상(石製一角雙獸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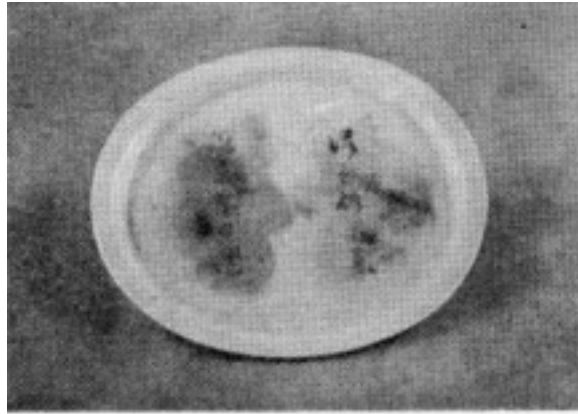
도 금속제삼족섬서
(圖 13) 金屬製三足蟾蜍

(圖 13) 금속제삼족섬서(金屬製三足蟾蜍)



도 녹문아인
(圖 14) 鹿文雅引

(圖 14) 녹문아인(鹿文雅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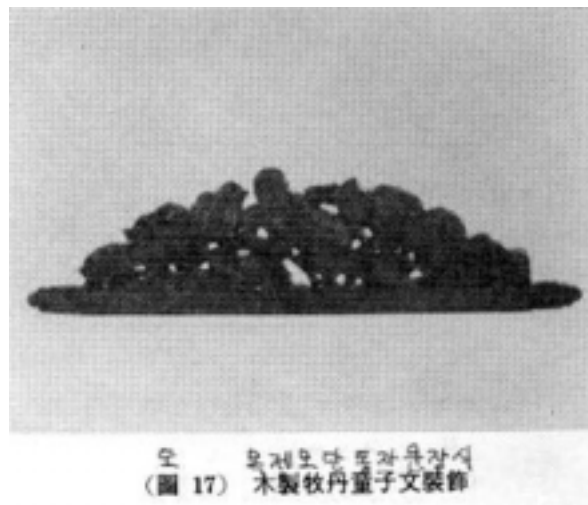
도 경백자양각쌍엽명문
 (圖 15) 青白磁陽刻雙葉銘文접시

(圖 15) 청백자양각쌍엽명문(靑白磁陽刻雙葉銘文)접시



도 경자투각연화문병이화병
 (圖 16) 靑磁透刻蓮花文丙耳花瓶

(圖 16) 청자투각연화문병이화병(靑磁透刻蓮花文丙耳花瓶)



도 목제모단동자문장식
 (圖 17) 木製牡丹童子文裝飾

(圖 17) 목제모단동자문장식(木製牡丹童子文裝飾)



모
(圖 18) 금동보살입상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圖 18)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